

## ‘코로나장기화’ 영농철 일손 부족·인건비 상승 ‘이중고’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제한 인력 수급 불안

일당 12만원 이상...지난해 대비 40~50% ↑

무안군, TF팀 구성·자원봉사자 모집 등 고심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이 일손 부족과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4월 이후 본격적인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이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4월 고구마 식재와 벼씨 파종 등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이면 마늘과 양파 수확까지 걸쳐 1년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는 5-6월에는 하루 평

균 3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2000여 명은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에서도 현재 고구마와 고추, 봄배추 등의 식재가 이어지고 있다. 해남 고구마는 100~200여 명의 인부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정도로 대규모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올 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물론 동남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출국이 제한되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에는 지난해 1500~2000여 명의 외국인 인력이 지역에 상주했으나 올해에는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수급 불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8만~9만원 수준이던 인건비는 특정 작물의 수확기 등 일손이 몰리는 시기에는 10만원을 넘어섰다.

올 해에는 코로나 초기 보다 40~50% 오른 12만~13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농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무안군은 올 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인력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고령농과 여성단체, 소규모 농가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영농철만 되면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파·마늘 수확기 노동력 수급은 물론 인건비 폭

등 문제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한다더니, 29층 숙박시설 웬말이냐”

여수 9개 시민단체,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계획 철회 촉구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계획 변화에 제동을 걸었다.

여수시민협 등 여수의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경도의 생활형 숙박시설계획을 지체없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에셋이 1조5000억원을 들여 대경도 일원 21만여㎡(65만평) 부지에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세계적 리조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여수지역민들

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면서 “하지만 처음 약속했던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월동과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발표되고 나서 이뤄진 것이기에 애초부터 경도 개발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려는 듯한 미래에셋의 은밀한 계획이 들통 난 것”이라며 “연륙교 계획이 확정되자 미래에셋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안 변경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10월 미래

에셋의 사업안 변경을 승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려는 미래에셋의 시도를 방관만 하고 있는 전남도나 여수시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성 여수시민협 공동대표는 “경도 생활 숙박시설을 목인해 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경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해준 것은 여수시민의 기대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몽개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전남 여수시 경도 전경

## 섬진강변 야생갯꽃 더 장관 이룬다

구례군, 확대재배해 독창적인 관광명소 조성 새로운 볼거리 마련

구례군은 섬진강 변에 야생갯꽃을 확대 재배해 독창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군수와 실과장들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숲길 섬진강변 야생갯꽃 확대 재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야생갯꽃을 이용한 관광 명소화 등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대숲길 섬진강변 야생갯꽃을 확대 재배해 구례군만의 독창적인 관광명소화 시킬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및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철저한 운영, 자기관리를 통한 공직 기강 확립, 지구의 날 ‘차없는 거리’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꽃과 생김새와 색깔이 비슷한 야생갯꽃은 대숲길 섬진강변에 피어 장관을 이룬다.

구례군의 야생갯꽃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야생갯꽃으로 김치를 담가서 먹을 정도로 쓰임새도 다양하



김순호 구례군수가 섬진강변 야생갯꽃길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구례군청 제공)

다. 산수유꽃, 벚꽃, 유채꽃으로도 유명한 자연 생태 중심지 구례에서 참신한 관광자원으로 야생갯꽃을 추가로 발굴한 것은 의미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례군은 내년에 면적을 더 늘려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광명소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은 22일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민)**

**W**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